

소제목 ▶▶▶ 누가 과연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1)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의 세 번째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는 비밀,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느끼는 불행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아픈 일이 도리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고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지혜의 일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실행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길을 사모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의 시작은 과연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지,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묻고 아는 이론이나 사상, 자기가 알고 깨닫는 그런 거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곧 감추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이 지혜가 무엇인지 바로 다음 8절을 보겠습니다.

(고전2:8)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는데, 만일 알았더라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전1: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4) 이어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정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볼 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의 우리,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시고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라면 우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이 더 깊게 더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누리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암송 및 묵상 말씀 📖 📖 “ 로마서 8 : 28 ”

----- ◆ 적용 ◆ -----

1. 어떤 일 앞에서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힘 써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일이 당장 보기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내 안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과 깊이가 더 순결하고 새로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